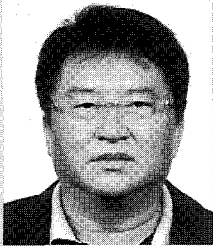


## 고객만족 통해 라벨부착기 시장 선도

### 불량률 0% 도전



임규재

한신라벨부착기(주) 대표이사

한신라벨부착기(주)(대표이사 임규재)는 자동라벨기 부착기 전문업체로서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생산라인에 적합한 기계제조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한 기계제작, 완벽한 성능, 철저한 A/S로 사용자의 원가절감과 생산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신은 1986년 자동라벨부착기를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을 시작한 이래 20여년간 자동라벨부착기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다.

80년대 당시만해도 전 분량을 해외에서 비싼 가격에 수입을 하여 사용할 만큼 자동라벨기 시장은 열악했던 상황. 임규재 사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내구성이 우수한 자동라벨기를 국내시장에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일본 (주)伊村産業과 기술제휴를 맺으면



▲ 현재 수많은 식품업체들이 한신이 제공한 라벨기로 신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신라벨부착기(주)

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기술능력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게 된 한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라면 어려운 위기를 한번 씩 맞았던 IMF때 한신라벨 또한 고비를 피할 수 없었다. 라벨기 시장은 특징상 신규 업체의 설립과 확장 또는 신제품 출시 때 자동라벨기를 사용하게 된다. 한신은 IMF 영향으로 상당수의 업체가 부도가 나 신규 투자는 물론 석달동안 아무일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한신의 직원들은 스스로

상여금을 반납하고 폭등하는 자재값을 충당하기 위해 전 직원이 전국을 누비며 회사 홍보와 영업에 나서 힘든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이를 계기로 한신은 가족같은 분위기로 전 직원이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며 단 한명의 직원도 구조조정이 나 정리해고로 인해 한신을 떠난 일 없이 지금까지 함께 해 오고 있다.

어려움을 함께하며 극복한 만큼 어느 회사보다 직원들의 애사심이 각별한 것은 당연지사.

직원들의 애사심이 각별한 만큼 한신의 제품 우수성은

동종업계에서도 유명하다.

한신의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은 망치로 때려 부수기전에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설명한다. 한신의 제품은 특성에 따라 시간당 약 4천개에서 7천개 정도의 라벨을 소화해 내고 있는데 불량률 0%를 지향하며 완벽한 기계를 제공하고 있다. 한신은 현재 라벨러, 주변기기, 전용가대, 표준형 라벨부착기, 특수형 라벨부착기, 특수주문형 라벨부착기, 바코드 라벨러, 반자동 라벨기, 열풍발생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 HANSHIN

특히 제품의 측면에 라벨을 부착하며 원형, 평면제품에 동시 사용이 가능한 측면첨부용 라벨부착기, 상면붙이기 전용 콘베어로 수동식 핸들장치에 의해 라벨러의 상하좌우 조작이 편리한 상면첨부형 라벨부착기, 평면용기에 대한 라벨링이 적합한 상면 및 코너부착 라벨부착기 등이 한신이 공급하는 표준형 라벨부착기 제품이다.

또한 전 주위 첨부용 라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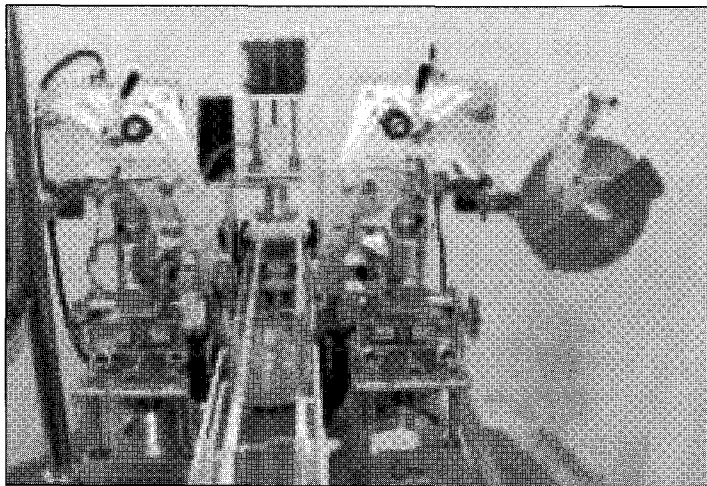
부착기, 상하 첨부용 라벨부착기, 양측면 첨부용 라벨부착기 등도 한신에서 자신있게 내놓는 제품이다.

둥근모양의 전 주위를 붙이는 전용기계인 전주위 첨부용 라벨부착기는 특수 설계된 보통사이드벨트 기구에 의해 고속으로 전 주위를 붙이기 하지만 제품의 형상 및 재질에 따라서 알파벨트기구를 병용하기도 한다. 종래의 상하부착콘베이어에 비해 콤팩트할

기구를 채택할때 아래면 붙이기의 첨부정밀도를 상면 붙이기와 동등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하 첨부형 라벨부착기는 반송부에 H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에 고속 자동라벨링에 있어서도 첨부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 양측면 첨부용 라벨부착기는 제품의 양측면에 동시 라벨링이 가능하며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한신의 제품은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만 가지가 넘는 라벨부착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100% 맞추어 내며 고객 만족을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늘에 라벨링 하는 기계부터 대형 드럼통까지 다양한 제품을 소화해 내고 있다.

한신은 식품, 영상산업, 주류, 제약, 기계, 기타 업체 등에 두루 제품을 납품, 현재 수많은 국내 회사들이 한신이 제공한 라벨기로 신제품을 생



▲ 한신라벨부착기(주)의 생산 제품



▲ 한신라벨부착기(주)의 2005 코리아팩 참가 당시 모습

산해내고 있다.

특히 국내 식품업체 대부분이 한신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회사의 기계가 얼마나 우수한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한신은 일본, 베트남, 러시아, 미국, 터키, 수단, 멕시코, 중국 등에 수출을 하며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국내 포장산업이 중국의 저가 제품 유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고 기술을 요하는 자동라벨기 시장은 오히려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별다른 영업이 없어도 중국의 경우 한신에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제품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임 사장은 “항상 고객입장에서 기계를 제작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기계다운 기계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 편의를 항상 유념하고 있다. 그 결과 한신의 제품은 지금껏 별다른 고장 없이 완벽을 추구하며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임 사장은 “한신은 항상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21명의 직원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특히 영업직의 경우 국내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지리를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부지런함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신은 현재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공장자동화를 위해 종합설비 업체로 발전해 가고 있다.

고객만족을 위해 불량률 0%에 도전하고 있는 한신라벨부착기(주). 라벨부착기 업체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더욱 그 위상을 떨치기를 기대해 본다. 

이한얼 기자